

EU와 중국 - 섬유 무역 문제를 하나로 묶어 합의

EU(유럽 연합)의 집행 기관인 EC(유럽 위원회)와 중국의 상무부(商務部)는 상하이에서 2005년 6월 11일 섬유 무역 마찰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합의하고 각서(覺書)에 조인(調印)하였다. 이에 따라 EU가 11일 이후에는 중국산 T셔츠와 아마사에 대한 잠정적 긴급 수입 제한의 발동은 취소되고, 이 2개 품목이 포함된 10개 품목의 수출량에 대해서도 중국이 자주적으로 규제하기로 하였다.

중국 상무부 홍보실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이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대상 품목은, EU에 의하여 “세이프 가드”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던 9개 품목에 여성용 오버 코트, 양말, 마 직물의 3개 품목이 빠지고, 대신 여성용 수트, 테이블 클로스, 베드 시트, 면포 등 4개 품목이 추가된 10개 품목이 자주 규제 품목이 되었다.

EU는 이 합의에 따라, 중국 섬유품의 대(對) EU 수출이 적절한 속도로 성장하도록 억제하면서, EU 섬유 산업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EU 및 중국은 물론, EU로 섬유품을 수출하고 있는 발전 도상국을 포함한 3자가 모두 이익이 되는 “win-win-win의 합의”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BBC 방송은 6월 11일 아침 뉴스에서 이 협상의 합의를 두 번째로 보도하면서 섬유품 무역 마찰 문제에 대한 EU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표시하였다. BBC는 이번 합의에 대하여, “단기적인 시야로는 EU가 승리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 10개 품목에

대한 자주적인 규제를 끌어낸 것은 큰 성과였으며, 동시에 기타 품목에 대하여는 EU가 스스로 자기 손을 묶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쿼터 프리 후에 중국의 섬유품 수입이 홍수처럼 급증하자, EU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5월 27일에는 EU가 긴급 수속으로 T 셔츠와 아마사의 과다 수출에 대하여 정식으로 협의하기를 중국에 요구하였다. EU는 중국이 수출 신장률을 7.5% 이하로 14일 이내에 자주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세이프 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6월 10일이 최종 시한일이었다.

중국은 EC의 움직임에 대하여 자유 무역의 정신이나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주적인 수출 규제를 위하여 74개 품목의 수출 관세를 올리려는 조치를 5월 20일에 발표하였으나, EU나 미국 등의 수입국으로부터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자, 5월 30일에는 수출 관세 인상 방침을 대폭으로 바꿔, 81개 항목의 수출 관세를 6월 1일부터 철폐하였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였으나 그런 동안에도 쌍방은 비공식 협의를 계속해 왔다. 중국 섬유품 수입에 대한 25개 EU 가맹국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EC는 모든 가맹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어려운 밸런스(balance)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미국처럼 일직선으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는 없었다. 연간 수출 신장률이 7.5% 미만이어야 한다는 세이프 가드의 규제에는 못미치지만 중국의 자주 규제를 끌어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EC는 가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과제이다.

중국에게 EU는 수출이나 수입에서 모두 제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그러므로 EC는 중국과의 결정적인 파국을 피하여 장

기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